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72호

I 국산 참다래 대만 수출단지 등록 완료

II 신선 농산물 수출 검역 요건 교육 실시

III 유엔(UN) 지정 '2020 세계 식물 건강의 해'

IV “딸기, 물러짐 · 곰팡이 걱정 없이
수출하세요”



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
2020

CO₂+ClO₂ : 일부 물러짐 발생, 곰팡이 없음



농수산물 수출 Zoom In 72호 2020. 3. 27(금)

‘20.2.29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14.0억\$

부 류 별

신선	가공	수산
  2.9% 211백만불	  1.0% 858백만불	  13.7% 334백만불
+ 김치, 닭고기, 채소종자 = 인삼류, 파프리카, 딸기	+ 라면, 쌀가공식품, 설탕 = 껌, 음료, 커피조제품	+ 전복, 오징어, 바지락 = 참치, 김, 고등어

국 가 별

* 쌀 무상원조 실적('19(2.0백만불), '20(1.8))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반영

  미국 203백만불(16.1%)	 껌(211%), 김(5%)  배(△7%), 소주(△1%)
  EU 94백만불(7.9%)	 라면(53%), 김(13%)  기타파스타(△4%), 참치(△2%)
  ASEAN 305백만불(2.8%)	▶ 인니 대형마트 연계 쌀가공식품 판촉(~4.30) ▶ 말련 유통업체 연계 유아용 스낵 판촉(~6.30)  라면(11%), 딸기(6%)  음료(△15%), 참치(△13%)
 껌(28%), 김치(15%)  딸기(△20%), 김(△15%)  라면(40%), 전복(2%)  껌(17%), 파프리카(△11%)  라면(32%), 설탕(14%)  김(△43%), 인삼류(△20%)	홍콩  62백만불(△1.0%) 일본  300백만불(△8.2%) 중국  194백만불(△16.1%)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0. 1. 1 ~ 2.29



- 김 치

- ◇ CV 19로 인하여 중국산 김치 공급 차질, 대체 수요로 증가
- ◇ 신제품 개발 등 품목 다양화를 통하여 수출 확대

18,588천불(11.7%)

▶ 주요 수출국 : 일본(9,499천불, △2.4%), 미국(2,667, 35.0), 홍콩(870, 15.4), 대만(705, 25.8), 호주(684, 41.9), 네덜란드(672, 42.5)

- 라면

- ◇ CV 19로 인하여 생필품으로 인식된 라면 수출 급증



80,020천불(25.0%)

▶ 주요 수출국 : 중국(17,252천불, 31.9% ↑), 미국(8,955, 20.5), 일본(6,722, 40.1), 태국(5,072, 79.3), 베트남(3,755, 45.7)



- 조제분유

- ◇ 주요 수출국인 중국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수출 큰 폭 증가로 전체 증가세

12,646천불(13.8%)

▶ 주요 수출국 : 중국(8,150천불, △4.9%), 베트남(3,443, 95.6), 캄보디아(784, 64.7)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

식물검역 이슈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산 참다래 대만 수출단지 등록 완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19.12.4일자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 검역 요령'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산 참다래를 대만으로 수출하기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들로부터 금년 2월 말 까지 선과장 등록신청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순천·보성·제주 각 1개소씩 총 3개 수출단지가 신규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등록 단지 소속 농가들은 병해충을 예찰·방제하고, 대만 검역관 현지 조사 등의 절차 거쳐 수출 검역에 합격한 참다래는 금년산부터 수출이 가능하다.

* 참다래 대만 수출단지(3개소) : 순천(1) · 보성(1) · 제주(1)

신선 농산물 수출 검역 요건 교육 실시

검역본부는 수출 농산물 재배 농가, 생산자 단체, 수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출 상대국 검역요건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교육대상 인원을 실제 교육이 필요한 농가 및 수출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가에서 재배 중 활용할 수 있는 방제기록부와 예찰기록부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검역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19년 교육실적 : 7,800여명(189회)



UN이 정한
세계 식물건강의 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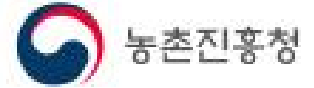
유엔(UN) 지정 '2020 세계 식물 건강의 해'

검역본부는 유엔이 정한 '세계 식물 건강의 해'를 계기로 학계,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식물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 식물 건강 주간(20.5월)」을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식물 건강 주간에는 김천 시민들이 해마다 참여하는 유채꽃 행사와 병행하여 세계 식물 건강의 해 선포식, 식물검역 발전 역사와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김천을 비전국 각지에서 식물검역 오픈 하우스, 병해충 예찰 경진대회, 식물검역 사진전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농진청 이슈



“딸기, 물러짐 · 곰팡이 걱정 없이 수출하세요”

농촌진흥청은 수출용 딸기에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신선도를 3~4일 가량 연장하는 기술을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딸기는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이 쉬운 품목으로 최근 수출 농가가 늘고 있지만, 기반 시설이 열악해 수확 후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홍콩 시범 수출 당시 적용한 이산화탄소(CO₂), 이산화염소(CIO₂) 동시 복합 처리 기술을 수출 현장 보급에 나섰다.

딸기에 이산화탄소를 30% 농도로 3시간 처리하면 단단함은 1.5~2배 증가하고 여기에 이산화염소 10ppm을 30분간 함께 처리하면 곰팡이로 인한 부패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 이 두 가지를 동시 처리하면 물러짐과 부패는 15~20% 줄고 저온(2°C)에서 신선도는 3~4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주산지 가운데 하나인 충남 논산 지역 농협 3곳과 영농조합법인 1곳에 이산화탄소, 이산화염소 동시 복합 처리기를 보급했다. 동시 복합 처리기는 딸기 수출 농가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저장고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기 하나로 2~3대의 저장고를 연결하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 품질은 물론, 작업 효율까지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3월에는 경남지역 딸기 수출단지인 진주 지역으로 동시 복합 처리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산 딸기의 이미지 향상으로 주요 수출 지역인 동남아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딸기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매향, 설향 위주에서 신품종인 아리향, 금실 등의 품종으로 확대해 해외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산 딸기를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처리 : 곰팡이 발생	CO₂+CIO₂ : 일부 물러짐 발생, 곰팡이 없음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복합처리기>	<무처리 : 상온 5일째>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처리>

☆ 농진청 이슈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